

명현관 군수 “으뜸해남 성장동력 육성에 속도”

●민선 8기 2주년

주민참여형 해남형 ESG 확산·대규모 SOC 확충 등 ‘솔라시도’기업발전특구 지정...2030프로젝트 추진

명현관 해남군수가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으뜸해남’의 비전을 구체화해 온 시간과 장기발전의 성장동력 육성에 속도를 높여왔다고 천명했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2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전반기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군정발전 방향과 비전을 설명했다.

해남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해남형 ESG 윤리경영을 군정의 전 분야에 도입하고,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6년 연속 달성하는 등 신뢰받고 일 잘하는 군정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성과로는 ▲고소득 부자농어촌 실현과 지속가능 미래농업의 기반 조성 ▲경제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계절 축제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관광 활성화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세대별 기반시설 확충과 인구정책 시행 ▲주민참여형 해남형 ESG 확산 ▲대규모 SOC확충과 장기성장동력 사업 발굴 등이 꼽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선 7기 해남유치기 확정된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최대 규모 농업연구



명현관 해남군수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2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전반기 ‘으뜸해남’ 주요 성과와 하반기 2030 프로젝트를 통한 경제도시 비전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4년 연속 고소득 농업인 전국 최다, 김위판고 1천억원 돌파 등 농업업 소득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해남을 사통팔달 연결하는 대규모 SOC사업들에 속도가 붙었다.

보성-해남-임성간 철도 2025년 개통, 국도 77호선 해남-신안 압해간 연결공

사 2027년 완공,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강진-해남 구간 2028년 착공 등 해남에 철도와 고속도로가 연결될 날이 가까워졌다.

해남-대흥시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와 마산-산이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도 동시에 추진해 관내외의 도로망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스포츠마케팅도 꾸준히 추진돼 왔다. 지난 5월 성황리에 마무리된 해남공룡대축제를 비롯해 사계절 특색있는 축제를 통한 관광객 증가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됐다.

청년두드림센터와 가족어울림센터가 완공됐고, 민선 7기 마련된 청소년 누림문화센터 및 작은영화관, 해남노인회관, 보존회관 등과 어울려 세대별·계

층별 필요공간이 큰 틀을 갖추게 됐다.

가장 최근 눈에 띄는 성과로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업단지 2개소 등이 정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해남군 기회발전특구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데이터센터 조성 66만㎡(20만평)와 화원산업단 해상풍력 배후단지 20만㎡(6만평) 등 총 86만㎡(26만평)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첨단전략산업이 육성된다.

명현관 군수는 “후반기에는 해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의 먹거리가 될 성장동력의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대부분 사업이 지금하지 않으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할 어렵고 힘든 사업이지만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첫 단추를 성공리에 꿰게 된 만큼 2030 프로젝트를 통해 사통팔달 살기좋은 경제도시의 비전을 완성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해남=박필용기자

윤병태 시장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가 최적지”

국회 방문 협력 요청...레이저연구시설 국가계획 반영도

윤병태 나주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민선 8기 비전인 미래첨단산업 활성화를 좌우할 과학·기술분야 핵심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윤병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현 간사를 만나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조성’,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초강력레이저연구시설 국가계획 반영’ 등을 요청했다.

윤 시장은 현안 사업별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겸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동석해 회의를 보냈다.

과방위는 올해 예산에 나주시가 역점 추진하는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으며 현재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다.

나주시는 그간 전남도 지역엔 전문 과학관 시설이 전무한 상태라며 미래 에너지, 첨단 과학기술을 직접 교육·체험할 수 있는 과학관 건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알려왔다.

광주-전남 공동(빛가람) 혁신도시에 과학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한

국전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전 에너지기술연구소 등 에너지 공기업·교육기관·연구소 등과 연계한 복합 과학·문화 공간으로 에너지 수도 나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태양은 바닷물 속 소수를 원료로 탄소 배출 없이 대용량의 핵융합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으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 앞다퉈 기술 개발 중이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발전소 개념이 아닌 향후 본격적인 상용화(발전)에 필요한 인공태양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실증하기 위한 시설이다.

나주시는 전남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협력해 지난 2022년 인공태양 8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등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는 120만㎡ 규모의 에너지국가산단, 40만㎡규모의 산학연 에너지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고 한전, 한국에너지공대 등 우수한 산학연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인공태양 연구시설 최적지”라며 국회 과방위의 적극적인 유치 협력을 요청했다. /나주=정충환기자



신안 흥도, 원추리 축제 파파르 크고, 아름다우며, 질감이 고와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사진은 원추리가 활짝 핀 흥도 모습. <신안군 제공>

국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신안군 흥도에서 오는 14일까지 ‘섬 흥도 원추리 축제’가 ‘붉은 흥도 노란 물결 춤추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흥도 원추리는 식물도감에 등재된 육지의 원추리에 비해 유난히 크고, 아름다우며, 질감이 고와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사진은 원추리가 활짝 핀 흥도 모습. <신안군 제공>

영광군, 재생에너지 참여 주민 이익공유 기준 논의

발전 총 사업비 4% 이상 등 검토

영광군은 7일 “지난 4일 김정섭 군수 권한대행과 관련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에 따른 지역별 이익공유 차등기준 마련 등에 대한 업무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발전사업에 따른 영항의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주민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100MW 미만의 중

·소규모 사업은 읍·면단위로, 1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은 군 단위로 참여하는 방안과 발전사업 총 사업비의 4% 이상을 모든 주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받고, 어업인, 인접지역 주민 등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추가적으로,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과 아동을 우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거주기간별 투자비용 차등과 아동수당 등 아동 지원 방안을 포함해 발전사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송변

전설비의 인근지역 주민도 우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익이 전체 주민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이 참여해 원활한 사회협약의 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공유자원을 바탕으로 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 모두가 풍족한 삶을 누리는 영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기자



야생 생물자원 식품 산업 활성화 추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항생제 대체제 등 국제심포지엄 발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7일 “지난 5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한국식품과학회 국제심포지엄에서 특별 공동 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션은 학회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말한다.

이번 공동 세션에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비롯한 생물자원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생 생물자원의 식품 산업 소재 연구’를 주제로, 기관별 관련 연구 현황 및 성과 발표와 함께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세균을 숙주로 하는 박테리오파지를 활용한 항생제 대체제 개발 연구와 전통 발효 식품 유래 유용 미생물 규명을 통한 유산균 제제 개발 연구에 대해 발표,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야생 생물자원의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 생물융합연구실장 “자원관 협의회를 통해 더 효율적인 야생 생물자원 유용성 연구 협력 방안을 찾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무안, 민선 8기 공약이행률 64.9%

정부출연 연구기관 유치 등 전년 비 21.2%p ↑ ...18건 변경 승인

무안군의 민선 8기 공약이행률이 지난해 동월 대비 21.2%p 상승한 64.9%를 달성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7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무안군 보건소 신청사에서 2024년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정책 변경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공

약변경 사항을 승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약이행평가단은 6월 기준 공약이행률 36.5%, 공약이행률 64.9%로, 지난해 동월 대비 완료율 18.5%p, 이행률 2.2%p가 상승하며 공약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유치 ▲오룡 복합문화센터 건립 ▲삼함음 원도심 활성화 사업 ▲가족친화형 예방 상시거

점 소독시설 설치 ▲영산강권역 도자문화플랫폼 구축 ▲K푸드 융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삼함음 원도심 활성화사업 등 정부 정책변경, 사전절차 이행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18건의 공약에 대해 담당 부서와 질의응답을 거쳐 공약변경을 승인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약실천계획 평가 A등급에 이어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며 “군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임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삼호기자

“영암 청년농 창업 돕는다”

郡,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착수

영암군이 청년농업인의 창업을 도울 영암형 스마트팜 조성에 착수했다.

7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청년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기본 계획에 담긴 ▲사업대상지 분석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설비 ▲임대형 스마트팜의 재배작물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방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농업인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보고회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청년농업인이 꿈을 키우는 영암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용역을 거쳐 수립된 기본 계획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설계, 운영·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영암=나동호기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강진군, 소득 기준 120%→140%

강진군은 7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군 소득 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관내 주소를 둔 치매약 복용자에게 치매 치료약 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확대 지원은 전남도 전남형 치매 돌봄체 종합대책 편찬으로,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막고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다.

신청은 치매 진단 질병코드·처방 약재명이 기재된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강진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준호 강진군보건소장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가족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치매 조기검진 ▲치매안심마을 운영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등 지역 주민의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치매안심센터(061-430-5294), 치매상담센터(1889-0988)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정영록기자